



햇소문

이회백 (61, 시애틀)

1992년 아니면 1993년으로 기억한다. 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내 당직 날도 아닌데 누가 한밤중에 전화를 거나하면서 수화기를 들었다.

“Hello?”

“Dr. Lee please.”

“This is he.”

“Uh? No, no, I mean Dr. Hoi Paik Lee...”

그제서야 전화 거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았다. “너 상배구나! (그는 뉴욕에 있는 내 동창이다) 너, 웬일이야?”

“어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는 “네가 살아있으니 됐다. 아니 사람들이 이런….” 하고는 도망치듯 수화기를 놓고 통화를 끊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를 드니 동기 장태환의 부인이었고 “동순이 엄마 좀 바꿔 주세요” 하기에 수화기를 처에게 넘겼더니 한참 동안을 깔깔대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뭐가 그리 깨가 쏟아지는 소리지?”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하다는 눈초리를 보내는 나를 무시하고 또 한참 깔깔대고 웃은 다음에야 하는 소리가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장태환 부인이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병원에서 레지던트 마친 선배 의사로부터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었지만 우리 서울고등학교 동창회보에 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까지 하니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뉴욕에 있을 때 내 처와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장태환 부인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미망인에게 직접 확인할 용기가 없어 다른 동창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이야기를 전해 받은 이 동창이 내게 아니 미망인에게 전화를 한 후 내가 아직 살아있더라고 장태환 부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듣고 나서 기분 상한 나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이 어떤 경로로 퍼졌을까 하는 궁금증은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 궁금증을 풀 실마리가 잡혔다. 시카고에 있는 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인 신팽승이 크리스마스카드와 함께 고등학교 동창회 회보 사본을 내게 보내준 것이다. 거기에 이미 타계한 동창들 명단에 나도 한몫 끼어 있는 것이었다. 그해 나는 동창회 회보를 받은 적이 없어 모르고 있었는데 이 사본을 보자 전에 우리 동기동창 재미 고등학교 동창회를 도맡아 하다시피 하는 시카고 동창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받은 처가 내가 잘 있느냐는 인사말 외에는 아무 전하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기에 좀 이상했었다는 처의 말이 생각났다.

어떤 연유로 내가 동창회 명부에 죽었다고 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은 생겼지만 내 친구가 말했듯이 내가 살아있으면 됐지하고 속으로 웃고 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재미의사회 회보에 난 기사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게 아닌가 하는 공상이 생겼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해본 이 공상이다. 이 공상은 전혀 사실과는 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공상은 아니라고 믿기에 한번 펼쳐볼까 한다.

재미 한인의사회 회보에서 본 기사는 이런 내용이다. 뉴저지에 사는 이 아무개라는 의사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의과대학 졸업 후 군 복무를 마치고 남보다 훨씬 늦게 미국에 이민 와 갖은 고초 끝에 의사 수련을 마친 후 면허를 획득, 이제는 간신히 살게 되었다고 한숨 놓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사생을 헤매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딱한 소식을 전해 들은 고국에 있는 동창들이 그를 살리고자 기금을 모으고 이식할 신장을 사면팔방으로 물색하는 한편 신장이 구해지면 고국에 데려와 신장 이식수술을 하게끔 마련해 놨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도 탄원을 했다. 그의 신장 상실 근원이 그가 전방 근무 시에 걸린 전염성 출혈열(Epidemic Hemorrhagic Fever)에 있으니 정부가 마땅히 치료해 줄 의무가 있다고 청원한 것이다.

그에게 맞는 신장을 구했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그는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뉴욕을 출발한 비행기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내려 연료 공급을 받고는 서울을 향해 떴다. 얼마나 기뻤으랴. 아! 몇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 나는 살아난다. 그러나 그 기쁨은 너무도 짧았다. 기내에서 그는 숨을 거둔 것이다. 서울을 향하던 비행기는 기수를 돌려 앵커리지에 다시 내렸고 그는 서울 수술실 대신 뉴저지 장례지로 향했다는 눈물겨운 기사였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이런 추측(또는 억측)을 해본 것이다. 이 의사의 성이 이씨였다는 것. 이름은 잊었지만 내 이름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다. 그리고 죽은 곳이 알래스카 상공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비행기를 가지고 있었고 알래스카 상공을 날아다니고 있었다는 것. 이런 일들이 겹쳐 비극의 주인공이 나라고 누가 속단(Jump into a conclusion)을 내린 게 아닌가 추측해 본 것이다.

내가 죽었다는 소문이 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내가 이곳(Fairbanks)에 와서 몇 해 후 우리 딸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다.

하루는 딸이 엄마에게 전화로 “엄마 아버지 죽었어, 흑, 흑, 흑…”

“뭐? 아버지가 죽었다고? 누가 그래.”

“김 오브라이언이 Fairbanks Memorial 병원 의사 닥터 리가 죽었다고 하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데. 흑, 흑, 흑….”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 집에서 근무 중 전화 오는 일이란 극히 드문 일이라 “웬일이야?”

“어… 어… 당신이요?”

“아니 당신이라니 이젠 내 목소리도 못 알아듣게 됐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위에 적은 내가 죽은 이야기를 깔깔대면서 해줘서 “어. 당신이요” 한 이유를 알았다.

나 아닌 다른 닥터 리가 있었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들 모르고 있었다. 같은 병원 건물에 두 기관이 있었는데 나 아닌 “닥터 리”는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알래스카 원주민 진료소 소속 직원이라 아무 접촉이 없는 데다가 부임한 지 일주일도 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몰랐다.

이곳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데날리; 또는 맥킨리’라고 불리는 국립공원인데 이 닥터 리도 오자마자 이곳을 향해 차를 몰다가 졸아 벼랑에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해서 이것을 “닥터 리가 죽었다”라고 방송하는 바람에 벌어진 소동이었다.

미워서 저놈 빨리 죽었으면 하는 놈일수록 질기게 오래 산다는 말이 있듯이 죽었다고 소문나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는 모양이다. 내 동창 신광승이 너는 죽었다고 소문이 났으니 백 살은 살 거라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나는 이런 소리를 믿지 않고 아무 근거 없는 소리라는 것 모르지 않지만 실없는 소리라고 일축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나한테 손해 날것 없으니. 고래부터 人生七十古來稀 라고 했는데 벌써 80을 훨씬 거뜬히 넘기고 의과대학 졸업 60주년도 지났으니 이게 다 죽었다고 소문난 덕이 아닐 손가.